

음주운전 주요 처분 사례

<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>

◆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목격자의 실시간 신고 활성화(스마트폰, 112신고 어플 등)로 거주지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 단속 적발 사례 다수 발생

[주요사례]

- 혈중알코올농도 0.171%의 술에 취한 상태로 1.5km 구간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발(2회차 음주운전 적발) (실형선고: 징역 1년)(당연퇴직)
- 혈중알코올농도 0.188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00 앞 노상에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전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명의 상해를 가함 (운전원 면허취소)(당연퇴직)
- 혈중알코올농도 0.238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음주운전 적발 (중징계: 해임)
- 혈중알코올농도 0.190%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A를 들이받고 피해차량 B, C를 차례로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,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적발(중징계: 해임)
- 혈중알코올농도 0.213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 적발 (중징계: 강등)
- 혈중알코올농도 0.121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우측 화단 안에 설치된 표지판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위로 반복 충격하여 약 820,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적발 (중징계: 정직 1월)
-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 중 접촉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(혈중알코올농도 0.064%)후 음주운전 적발 (경징계: 감봉1월)